

## 경제관계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5.13)

-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.
  - 하지만 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”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.
  -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,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습니다.
-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.
  -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.
  -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경제팀은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겠습니다.
  -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·집행하고,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·보완하겠습니다.
  - 복합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혀 반드시 “해답을 찾는 경제원팀”이 되겠습니다.

[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]

[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]

□ 오늘은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와 창업 현황을 점검하고, “성장의 날개”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.

□ 올해 1분기 벤처투자\*는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

\* 벤처펀드 결성액: ('23.1Q) 1.7 → ('24.1Q) 2.4조원(+42%) / 벤처투자: ('23.1Q) 1.8 → ('24.1Q) 1.9조원(+6%)

○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 중 2.8조원\*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.

\* 스타트업코리아펀드(8,000억원), 지역혁신벤처펀드(2,100억원), 글로벌펀드(1조원) 등

○ 또한 하반기에는 펀드결성·투자·회수 등 전반에 대한 「벤처투자 종합대책」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\*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합니다.

\* 벤처·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서비스

○ 지역 투자·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-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,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. (현행 30% → 최대 49%)

- 우수 투자·보육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·기보 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우대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,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 [ 협업예산 추진방안 ]

-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습니다.
- 특히, 저출생 대응, 청년지원, 첨단·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·사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

### [ 어촌·연안 활력 제고방안 ]

- 끝으로 어촌·연안 지역에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련한 민생·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합니다.
- 어촌 내 유희 국·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.
- 동시에 규제개선\*과 디지털전환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·안전성을 높여 “일할 맛 나는” 어촌현장을 만들겠습니다.

\* 어획제한 기간 및 어종 크기, 어구 사용량 등 관련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완화(~'28)

-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중기부 장관, 해수부 장관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 (중기부 장관,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